

봉황사상을 통해 본 조선시대 지방읍치의 지형해석과 공간개조

A Study on Topography Interpretation and the Space Remodeling of the Local City by the Phoenix Thought

신 상 화*

Shin, Sang-Hw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opography interpretation and the space remodeling characteristic of the city by the feng shui thought.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

1. remodeling of the city in the Phoenix thought to be involved in the background wants to overcome the difficult situation in the desire to confirm the implications could be.
2. Six cities have confirmed that the restructuring of urban space by the idea that Phoenix, paulownia, a common landscape elements such as bamboo forests, buildings and places, the egg of the phoenix in relation to landscape, such as Phoenix said that the building area as appropriat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elements.

키워드 : 풍수, 봉황, 지형해석, 공간개조

Keywords : Feng Shui, Phoenix, Topography Interpretation , Space Remodeling

1. 서론

도시의 역사적 환경은 도시 활동의 오랜 축적 속에서 배양되어온 것으로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 도시공간이나 전통문화는 시민고유의 귀중한 재산이다. 또한 도시의 역사적 환경은 도시경관의 형성을 도모함에 있어 시민의 identity를 보호 육성시키는 것으로서 보전 계승해 가는 것이 소중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지방 소도시의 대부분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지역에 산재하는 역사적 환경들이 충분히 보전 계승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선시대 지방 읍치(邑治)의 경관을 특징 지었던 읍성(邑城)은 대부분 훼손되거나 성벽의 일부만이 잔존하고 있고, 그 외 옛 정취를 살필 수 있는 역사적 환경들도 점차 지역민의 인식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한편, 최근 들어 도시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의 역사성, 지역성 등 도시고유의 identity 회복을 위한 방안들이 여러 지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도시를 구성하는 많은 환경요소들 중에서 역사적 환경을 보존 재생하여 도시환경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도시경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작업은 도시를 보다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도시개발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또 하나의 역사적 경관이라 할 수 있는 산, 강과 같은 자연환경을 단서로 풍수적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지형해석관과 봉황(鳳凰)이라고 관념에 의해 재구축되는 풍수적 도시 경관을 규명함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의 키워드가 되는 봉황(鳳凰)은 신화 및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동물로서, 「說文解字」¹⁾에는 봉황이 세상에 나타나면 온 세상은 편안해진다(見則天下大安寧)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성군(聖君)이 출현하거나 세상이 태평성대일 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²⁾. 하지만 봉황의 개념은 실제로는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상황이 극복되어 평안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메시아적 염원을 담고 건축이나 도시공간에 형상화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봉황사상과 관계있는 공간에서는 대숲, 오동나무와 같은 공통적 경관요소와 함께 봉서루(鳳棲樓), 봉란(鳳卵) 등의 공간들이 각각의 공간에 맞게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 구비되는 공간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어 이를 규명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도시 및 건축경관의 특성을 논함에 있어 의미 있는 작업이라 판단된다.

1) 중국 후한(後漢) 때의 자전. 15편으로 되어 있다. 허신(許慎)이 지었으며, AD 100년에 쓴 서문이 있다. 글자형에 따라 분류된 가장 오래된 자전이다.

2) 엄밀히 말하면 봉황은 합성된 단어로 수컷은‘봉(鳳)’, 암컷은 ‘황(凰)’이라고 한다.

* 정회원, 한국국제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설문해자(說文解字), 여지도서(輿地圖書), 지봉유설(芝峰類說, 1614년) 함안총쇄록(咸安叢瑣錄), 교남지(嶠南誌) 및 의춘지(宜春誌)를 비롯한 관련 지역 읍지(邑誌), 지승³⁾,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⁴⁾, 읍지도(邑誌圖),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 등의 일차적 자료를 활용하면서, 경북마을지, 시사와 같은 이차적 자료와 현장답사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봉황사상을 통해 본 소쇄원과 동화사

소쇄원과 동화사는 각각 정원과 사찰로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장소들이다. 본 장에서는 봉황사상과 지방 읍지와 관련성 검토에 앞서, 봉황사상이 소쇄원과 동화사의 조영에 관여하게 되는 시대적 상황과 경관특성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2.1 소쇄원(蕭瀟園)

소쇄원은 소쇄옹 양산보에 의해 조영된 정원으로, 소쇄원의 조영을 통해 전술한 봉황사상이 소쇄원의 조영에 반영되는 배경을 살펴 볼 수 있게 한다. 즉 소쇄원은 스승 조광조 선생이 만들고자 했던 세상이 기묘사화로 인해 좌절되는 어려운 시대상황 속에서 만들어진다. 비록 기묘사화로 인해 조광조 선생과 양산보 선생이 추구했던 세상의 실현은 실패했지만, 대봉대(待鳳臺)를 통해 다음을 기약하는, 즉 자신의 염원을 이해하는 봉황이 찾아오고, 당면한 어려운 시대가 극복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은유적으로 조영된 공간이 소쇄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소쇄원 전경



그림 2. 대봉대

소쇄원에서의 봉황사상은 구체적으로 그림 1에 제시한 진입부의 대숲과 봉황을 기다리는 장소를 상징하는 대봉대, 그리고 대봉대 앞 오동나무와 청천(우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봉황은 죽순과 맑은 샘물을 먹고, 벽오동 나무에 머문다고 하는 관념이 있어 봉황과 관련 있는 장소에는 대부분 대숲과 오동나무가 마련되어 있다⁵⁾. 소쇄원

은 이처럼 봉황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봉황이 찾아오도록 기다리는 기다림의 염원을 담고 만들어진 정원으로, 소쇄원이 조영되는 시대적 배경을 통해 본 장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메시아적 개념으로서의 봉황이 나타나는 배경을 살펴 볼 수 있게 한다.

2.2 동화사(桐華寺)

동화사⁶⁾는 소쇄원과 마찬가지로 봉황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찰로서, 현재 사찰 내에는 봉서루(鳳棲樓), 봉란(鳳卵), 봉황문, 대숲, 오동나무 등 봉황과 관련된 공간요소들이 현존하고 있어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주목되는 사찰이다. 동화사와 봉황사상과의 연결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현존하는 건물의 편액과 건축공간들을 통해 그 일단을 살필 수가 있다. 동화사의 가람배치(그림 3)를 살펴보면, 먼저 사찰의 첫 문이 되는 일주문에는 1744년으로 추정되는 팔공산동화사봉황문(八公山桐華寺鳳凰門⁷⁾)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어 동화사가 봉황의 터전임을 알게 한다. 계곡을 따라 오르다보면 금당선원 입구에는 봉황모양을 한 인악대사비⁸⁾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탈교와 천황문을 지나면 대웅전으로 진입하기 전의 봉서루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봉서루 앞 커다란 바위에는 봉황 알을 상징하는 둥근 알이 3개 놓여져 있다(그림 4). 봉서루는 봉황이 깃드는 누각이란 뜻으로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동화사의 형국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⁹⁾. 뿐만 아니라 동화사의 봉황의 존재는 대웅전 내부 천정의 여섯 마리 봉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동화사 주변으로는 대숲과 오동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으며, 특히 칠성각 뒤편으로는 십지대사 나무로 불리는 오동나무가 있어 동화사와 봉황사상과의 유래를 살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처럼 동화사는 봉황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현존하는 봉서루(鳳棲樓), 봉황문(鳳凰門), 인악대사 비, 오동나무 등을 근거로 살펴 볼 때 봉황사상이 최초로 관여한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17~18세기를 전후하여 사찰이 재구성되는 시점에 불교계의 어

과 오동나무, 봉알(鳳卵), 서봉지(棲鳳池)등이 지역발전의 염원을 담고 조성되었음을 拙稿(풍수사상에 의한 진주의 지형해석과 공간개조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제 5권 2호)에서 밝혔다.

6) 동화사 사적기에 의하면, 동화사는 신라 소지왕 때 유가사로 창건된 이래 흥덕왕 7년(832년) 십지대사에 의해 중건될 때 오동나무가 거울에 상서롭게 피어 동화사로 개명하였다. 이후 동화사는 임진왜란 때 크게 훼손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웅전(大雄殿, 1639년, 1728년 중창), 심검당(1605년 초창, 1726년 중창), 갯생원(1614년 초창, 1726년 중창) 등에 관한 중창 기록으로 보아 17~18세기에 대대적으로 정비되었음을 추찰하게 한다. 그리고 봉서루에 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으나 봉서루 편액과 일주문인 봉황문 편액 또한 1744년에 퀘션 선사가 쓴 것으로 확인되므로 18세기 초의 중창 때에는 봉황의 개념이 반영되었음을 상정해 볼 수 있다.

7) 편액은 快善 柳箕城의 글씨로 1744년(영조20)에 씀.

8) 인악대사(1746~1796)는 대구 달성군에서 출생

9) 편액은 快善 柳箕城(1693~1764)의 글씨(1744년, 영조20)

3) 地乘은 군사요지인 일부의 관방처와 전국의 군현을 총 6책으로 나누어 그린 그림식 지도책으로, 본 지도책의 필사 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빨라도 1776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4) 大東輿地圖는 김정호가 1861년(철종 12)에 조선을 남북 22폭(또는 층)으로 나누어 만든 목판본 대축척 조선 지도책이다. 1864년(고종 1)에는 일부분을 수정하여 재판되었다.

5) 진주의 경우, 읍지의 진산이 비봉산(飛鳳山)으로 이와 관련하여 대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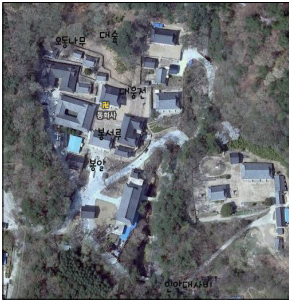


그림 3. 동화사 배치도



그림 4. 봉서루와 봉알



그림 5. 경상도 지도 (해동지도)

려운 시대상을 극복하기 위한 염원을 담고 봉황사상이 관여되었음을 상정(想定)해 볼 수 있게 한다.

이상 소재원과 동화사의 사례를 통해 보는 바와 같이 봉황사상은 어려운 시대를 타계하고자 하는 의지의 구체적 표현, 내지는 심리적 위안을 삼기 위한 한 방편으로 상징적으로 조성되었음을 상정해 보았으며, 구체적으로는 봉황의 개념에 근거하여 대숲, 오동나무, 봉란, 샘물과 같은 경관형성 요소들이 구비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3. 봉황사상을 통해본 지방읍치의 지형해석과 공간개조

본 장에서는 조선시대 경상도 지역 읍치¹⁰⁾ 가운데 봉황과 관련되는 6곳을 선정하여 읍치의 지형해석과 공간개조에 관한 검토를 통해 봉황사상에 의해 구축된 읍치 경관의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3.1 지방읍치의 지형해석과 용맥

이수광의 지방읍설(芝峰類說)에 보면 우리나라 모든 산의 근원은 백두산에서부터 비롯되어 마천, 철령을 거쳐 금강산, 오대산, 태백산을 거쳐 지리산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다¹¹⁾. 또한 여지도서, 경상도, 봉화조에는 태백산을 경상도의 조종산(祖宗山)으로 보는¹²⁾, 태백산에서 비롯되는 산의 흐름들이 개개의 읍치에 이른다고 하는 새로운 풍수적 지형 해석관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지형인식관은 그림 5의 해동지도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지형인식에는 풍수적 의미의 용맥사상(龍脈思想)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할 것이다¹³⁾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경상도

지역 순흥, 예천, 선산, 영천, 의령, 함안에서는 모두 태백산에서 비롯되는 풍수적 의미의 용맥(龍脈)으로 연결되는 지형인식을 확인 할 수 있다.

3.2 순 흥

(1) 역사적 경관

순흥은 조선시대 순흥부(順興府)가 설치되었던 곳으로, 행정구역은 지금의 경북 영주시 순흥면·단산면·부석면 일대이었으며, 읍치는 순흥면 읍내리에 있었다(그림 6)¹⁴⁾. 조선시대 당시 순흥의 읍치경관을 순흥부지도(1776년 경제작된 지방지도)를 통해 살펴보면, 순흥 읍치에는 읍성은 설치되지 않았으며, 객사와 아사를 비롯한 관아시설들을 중심으로 읍치가 묘사되어 있다¹⁵⁾. 그리고 향교를 제외한 사직단, 여단, 성황단 등 당시 읍치경관의 중요한 요소였던 제사시설들은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여지도서 등의 읍치 기록을 통해 제사공간을 비롯한 서원 등 당시의 유교적 이념에 의해 구축되었던 전형적인 읍치경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쉽게도 현재는 대부분의 역사적 경관들은 훼손되어 그 위치조차 불분명하여, 조선시대 순흥 읍치의 위상을 살피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봉서루(鳳棲樓)가 복원되어 옛 정취의 일단을 느낄 수 있다.

(2) 지형해석

순흥 읍치의 지형은 용맥(龍脈)의 개념으로 설명되는 풍수사상에 의해 해석 될 수 있다. 여지도서, 순흥부 산천조에 의하면 순흥의 진산은 비봉산(飛鳳山)이며, 비봉산은

있다. 이중 스케일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보이는 형국론을 제외하면 조금씩 스케일 다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간룡법이 가장 큰 스케일로 판단을 하고, 좌향론은 이미 입지가 결정된 건축물이나 묘의 방위를 결정하는 가장 작은 스케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정리 해볼 수 있다.

14) 순흥은 조선 태종 13년(1413년)에 도호부가 되었다가 세조3년(1457년)에 풍기군에 속하였으며 숙종9년(1683년)에 재차 도호부로 복구되었다가 1914년 군현 통합에 의해 영주시, 봉화군에 나누어 짐.

15) 여지도서의 기록에 따르면 원래 순흥에는 둘레 1,019척(邑城石築周一千九尺高六尺今廢) 규모의 읍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0) 조선시대 관아가 있던 지방의 행정 중심지

11) 我國諸山皆發源於白頭山自摩天鐵嶺而南爲金剛五臺太白至智異而盡焉

12) 太白山...(중략)...本道祖宗山(하략)...

13) 1871년읍치의 산천조에는 간룡법적 인식 이외에도 장풍법, 형국론에 해당하는 인식이 기술되어 있다. 최창조의 분류에 따르면 풍수의 술법은 산의 흐름이나 산의 모양을 판단하는 간룡법(看龍法), 혈 부근의 주위 산세를 판단하는 장풍법(藏風法), 강등의 수계의 흐르는 방향, 형태를 판단하는 득수법(得水法), 취락이나 묘지 등을 만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곳인 혈을 나타내는 정혈법(定穴法), 건축이나 묘 등의 방위를 결정하는 좌향론(坐向論), 지형의 형태를 글자나 동물, 물체에 비유하여 길흉을 판단하는 형국론(形局論)으로 나누고

태백산(太白山)-소백산(小白山)에서부터 비롯된다고¹⁶⁾ 하는 풍수적 용맥의 개념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비봉산 이외에 구체적인 기술은 없지만 그림 6에 제시한 순흥부지도를 통해 비봉산을 현무로 하는 전형적인 풍수적 형국을 상정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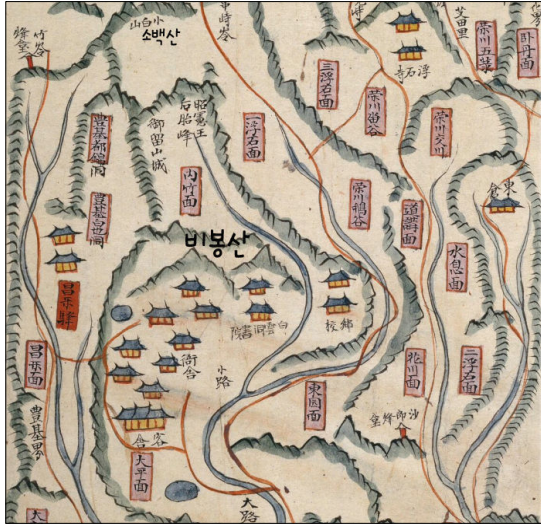


그림 6 순흥부지도(地乘)

(3) 공간개조

순흥의 풍수적 개념에 근거한 지형해석과 함께 주목되는 것이 봉황의 개념이 담긴 설화이다. 영주문화원¹⁷⁾의 기록에는 봉서루(鳳棲樓)의 건립경위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옛날에 순흥은 한산한 고을이었다. 하루는 지리에 능통한 이인(異人)이 나타나 지형은 번성할 곳이나 앞이 너무 허해서 순흥의 진산인 비봉산의 봉이 남쪽으로 날아가 이곳이 흥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것을 듣고 있던 고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묻자 남쪽에 큰 누각을 짓고 오동나무를 심어 봉이 못 가도록 알을 만들어 두면 이 지방이 흥하고 명인이 많이 날 것이라고 하고 사라져 버렸다. 고을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서 서로 수의를 거듭한 결과 읍에서 남쪽 1.5km 되는 곳에 큰 누각을 짓고 봉서루라고 이름하고 그 옆에 흙을 쌓아 봉의 알을 세 개 만들고 누각 앞에 오동나무를 많이 심어 두었다. 몇 년 안가서 이인(異人)이 말한 대로 글 잘하는 선비와 이름난 무인이 나고 또 고을이 번성하게 되었다.

전술한 동화사에서 본 바와 같이 봉황이 깃드는 누각을 뜻하는 봉서루(鳳棲樓)는 교남지(嶠南誌), 루정조에 기록되어 있는 안축(1287~1348)의 기문¹⁸⁾을 통해 순흥에는 시기적으로 고려 때 봉서루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상기 설화를 통해 봉황의 음덕을 기원하는 지역민의 염원

또한 읽을 수 있다. 즉, 순흥의 번성을 염원하여 읍치 앞쪽 수구부의 지세를 보완하기 위해 지동리에 3개의 조산(봉알)을 만들고, 그 곁에 봉서루를 세우고 오동 숲을 가꾸었다¹⁹⁾. 봉황이 깃드는 집인 오동나무와 후손을 상징하는 알자리를 마련하여 봉황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지역민의 염원을 담은 읍치의 인위적 공간개조가 시도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7. 봉서루와 봉알

한편, 상기 기록과 함께 주목되는 것이 봉서루는 1930년경 지금의 순흥 면사무소 경내에 옮겨져 중건되었는데 이후 순흥에는 인물도 나지 않고 지방의 번영이 점점 쇠퇴한 감에 따라 주민들은 봉서루를 헐어 읍내로 옮긴 것을 후회하였

음을 영주문화원은 기록을 전하고 있어 봉황사상이 지역 정서에 계승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이렇게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봉서루는 2006년 12월 원래의 위치인 순흥 면 지동리에 복원되었다(그림 7)²⁰⁾.

3.3 예천

(1) 역사적 경관

예천은 조선시대 예천군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행정구역은 지금의 경북 예천군 예천읍, 용문면, 유천면, 감천면, 보문면, 호명면 일대와 문경시 동로면, 의성군 다인면 지역을 포괄하였으며, 읍치는 예천읍 노상리에 있었다²¹⁾.

예천 읍치에는 예천군 지도(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읍성은 설치되지 않았으며, 읍치 내의 주요 시설물들로는 객사(客舍), 아사(衙舍), 쾌빈루(快賓樓), 반학정(伴鶴亭), 무위당(無爲堂), 사과재(思過齋), 봉서루(鳳棲樓), 창사(倉舍) 등의 관아시설과 향교, 성황단, 사직단, 여제단, 그리고 봉란(鳳卵) 등의 공간들을 확인 할 수 있다. 현재 향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간들은 근대이후의 개발과정 속에 훼손되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2) 지형해석

예천의 입지해석과 관련하여 교남지(嶠南誌)의 기록을 보면, 덕봉산(德鳳山)은 읍의 진산으로 소백산에서 비롯된다고 기록되어 있다²²⁾. 순흥과 마찬가지로 진산이 되는 덕봉산 이외의 구체적 기록은 없지만 예천군지도(그림 8)를

19) 최원석, 한국의 풍수와 비보(민속원, 2004), p.257

20) 북부유교문화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봉서루 이전 복원은 7억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4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년간 봉서루 복원, 담장설치, 화장실 설치, 소공원 조성 등을 통해 새롭게 단장했다.

21) 예천의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신라 경덕왕 16년(757) 때 예천군으로 처음 불리어진 이래 수차례의 행정구역의 변화를 겪으면서 1416년(태종16)에 예천군(醴泉郡)으로 이름을 고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22) 德鳳山在郡西三里自小白山來爲嶺山上有黑鷹城

16) 飛鳳山府之嶺山自小白來, '飛鳳山在郡北爲嶺山

17) <http://www.yjcc.or.kr/>

18) 鳳棲樓在郡南三里右有安軸記



그림 8. 예천군지도(地乘)

통해 덕봉산을 현무로 하는 예천의 풍수적 형국을 상정해 볼 수 있다.

(3) 공간개조

예천의 진산인 덕봉산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기록으로 경상도 읍지에는, 군의 주산(진산)인 덕봉산이 비봉형이기 때문에 봉란산(鳳卵山)을 두었다는 기록을 전하고 있으며²³⁾, 1776년 이후 제작된 지승의 예천군지도를 통해 봉란(鳳卵)을 확인 할 수 있다²⁴⁾. 아쉽게도 봉란은 1960년대 초까지는 지금의 파라다이스호텔 근처 구룡나루에 있었으나 도시개발과정에서 사라졌다고 전한다. 또한 예천군 지도에는 덕봉산(德鳳山)와 봉란 이외에도 봉황이 깃드는 봉서루(鳳棲樓), 봉황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연빈루(燕賓樓) 등 봉황과 관련된 건축적 공간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현존하는 유구가 없는 상황이다.

3.4 선산

(1) 역사적 경관

선산은 조선시대 선산부(善山府)가 설치되었던 곳으로, 행정구역은 지금의 경북 구미시 선산읍, 해평면, 산동면, 도개면, 옥성면, 무을면, 고아면 일대이었으며 읍치는 선산읍 동부리 인근에 있었다.

읍치에는 그림 9의 고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읍성²⁵⁾이 중심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읍성 내에는 객사²⁶⁾, 아사, 인리청(人吏廳), 장청(將廳), 진창(賑倉), 찰미루(察尾樓), 낙남루(洛南樓), 봉하루(鳳下樓), 등의 관아시설이 설치되

어 있었다. 읍성 밖으로는 성황단, 사직단, 여단 등의 제사 시설과 향교, 향사청 등의 시설들도 확인 가능하다. 현재는 조선시대에 구축된 역사적 경관들은 객사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훼손되었지만, 2002년 역사문화유산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선산읍성의 남문인 낙남루(洛南樓)가 복원된 것은 역사적 경관의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²⁷⁾.

(2) 지형해석

선산의 지형해석과 관련하여 교남지(嶠南誌)에는 비봉산(飛鳳山)은 군의 진산으로 상주의 연악산에서 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지형해석관을 기록하고 있다²⁸⁾. 진산이 되는 비봉산 이외에는 구체적 기술은 보이지 않지만 1872년 제작된 지방 읍지도를 통해 비봉산을 현무로 하는 선산의 풍수적 형국을 상정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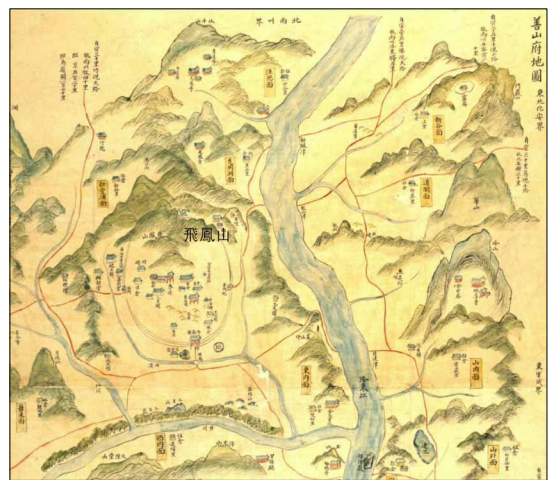


그림 9. 선산부지도(1872년 지방지도)

(3) 공간개조

봉황사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읍치의 공간개조 사례는 경북마을지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선산읍의 진산은 비봉산으로서 봉황이 날아가 버리면 고을이 망한다고 황산리 앞산을 황상이라 이름 지어 짝을 지우고 봉황을 기쁘게 한다하여 화조리 혹은 영봉동을, 봉황은 죽실을 먹는다고 대나무를 상징하여 죽장리라 하였거나 봉황이 날아가지 못하게 그물을 친다는 의미로 망장동이라 하였다²⁹⁾. 이외에도 무래리(舞來里) 역시 봉황(鳳凰)이 날아오는 것을 뜻한다. 그 뿐만 아니라, 봉황(鳳凰)은 알을 다섯 개를 낳는데 한 개는 이미 앞뜰에 있는 동산이므로 다시 네 개의 동산(五卵山)이 되게 하였다. 선산의 경우 고을의 진산이 비봉산(飛鳳山)으로서 봉황은 알을 품는 형세가 되어야 명당 형국을 이룰 수 있다하여 인위적으로 다섯 개의 봉황알을 상징하는 흙무지

23) 鳳卵山在邑東亭邊如卵形世傳郡主山爲飛鳳形故指此爲鳳卵山云爾

24) 예천읍 서쪽 3리에 있는 진산인 덕봉산이 비봉형국이어서 읍치의 수구(水口)부분인 구룡나루에 비보하였다. <<경상도읍지>>에는 이와 관련하여, “봉란산은 읍의 동쪽 동정(東亭) 가에 있는데 세간에 전하기를, 군의 주산(主山)은 비봉형이라 이것을 가르켜 봉란산이라 말한다”고 하고 있다.(최원석, 2003, p.129)

25) 둘레 2,570척, 높이 4척 5촌

26) 선산객사는 18세기에 지금의 선산초등학교 자리에 건립된 후 1914년 현 위치로 옮겨져 선산면사무소로 사용되다가 1987년 내부를 개조하여 향토사료관으로 이용되고 있다.(유형문화재 제221호)

27) 안동시의 경우, 1955년 안동군청을 철거하면서 안동군청이 있던 시의 요지 땅을 개발논리에 의해 매각하는 대신 옛 관아(동헌)를 복원하면서 이를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심의 역사적 환경(경관)을 복원하였다.

28) 飛鳳山 在郡北十步 尙州淵巖山來爲嶺山

29) 최원석, 한국의 풍수와 비보(민속원, 2004), p.333~334. 재인용

를 조성하였던 것이다. 이 다섯 개의 동산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점차 허물어져 1966년 경지 정리에 따라 자취를 감추고 지금은 한 개의 동산만이 남아 있다.

상기 기록을 통해 선산에서는 봉황과 관련하여 봉황의 먹이가 되는 대나무를 상징하는 죽장리를 비롯하여 망장동, 황산리, 영봉동 등 봉황을 머물게 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는 지명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읍성 내의 봉하루(鳳下樓)와 비봉산 뒤편 미봉사(尾鳳寺)를 통해서도 봉황사상의 흔적을 살필 수 있다.

3.5 영천

(1) 역사적 경관

영천은 조선시대 영천군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지금의 경북 영천시 금호읍, 청통면, 대창면, 북안면, 고경면, 임고면, 자양면 일대로 읍치는 성내동 인근에 있었다.

읍치에는 그림 10의 고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읍성을 중심으로 읍치가 설치되어 있다. 영천군읍지(1831년)에 따르면 읍성 내에는 객사(영빈관), 동헌(목애당) 이외에 내아, 향사당, 장관청, 군관청, 인리청 등의 관아시설들과 향교, 그리고 읍성 밖으로는 성황단, 사직단, 여제단 등의 제사시설들도 확인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시설의 대부분은 훼손되어 버리고, 지금은 향교와 조양각(朝陽閣)만이 옛정위를 느낄 수 있게 한다.

(2) 지형해석

영천의 지형해석과 관련하여 여지도서, 영천군 산천 조에는 군의 진산이 모자산임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모자산은 영천 읍치로부터 90 리나 떨어져 있어 읍치의 실질적 배경이 되는 산, 즉 풍수적 의미의 현무를 필요로 하게 된다. 현무에 대한 구체적 기술은 없지만, 후술하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에 영천의 지세가 비봉형(飛鳳形)이라 기록하고 있고, 우백호의 흐름 속에서 유봉산(遊鳳山)과 읍치 남쪽의 안산인 작산(鵲山)을 통해



그림 10. 영천군지도(地乘)

영천에서의 봉황의 흔적을 살필 수 있다.

(3) 공간개조

영천군의 경우, 유봉산(遊鳳山), 작산(鵲山) 등의 지명 유래를 통해 봉황사상의 흔적을 확인 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28년)에는

작산은 고을 남쪽 6리 에 있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이 고을의 지형이 나는 봉(鳳)과 같다하는데, 봉은 대나무를 사랑하고, 또 까치가 지저귀고 날아가지 않는 것을 보았으므로 산의 이름을 작(鵲)이라 하고 또 죽방(竹防)이 있다. 죽방산(竹防山) 고을 남쪽 9리 떨어진 곳의 남천(南川)과 북천(北川) 두 물이 구에 있다³⁰.

라고 기록되어 있다. 먼저 작산(鵲山)의 유래와 관련하여 봉황이 떠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산의 이름을 작산이라 하였으며, 또한 교남지(嶠南誌)³¹의 기록에는 죽방산을 일러 유봉산(遊鳳山)이라³² 한 바와 같이 영천에서의 봉황과 관련 된 흔적들을 살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죽방산에는 죽방사(竹防寺)가 조성되는 등 봉황의 영향을 살피게 하고 있다.

3.6 의령

(1) 역사적 경관

조선시대 의령은 의령현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읍치(邑治)는 현 군청지를 중심으로 의령읍 서동리 일원에 있었다. 읍치에는 그림 11 고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읍성을 중심으로 읍성 내에는 객사(宜春館), 동헌(樂豐軒)과 향사당(鄉射堂), 군관청(軍官廳), 장관청(將官廳), 인사청(人使廳) 등의 관아시설들이 묘사되어 있다³³. 그리고 읍성 밖으로는 향교와 성황단, 사직단, 여제단 등의 제사시설들도 확인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시설의 대부분은 훼손되어 그 위치조차도 확인하기 어려우며, 현재 읍성 서쪽 성벽의 일부가 잔존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보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2) 지형해석

의령의 지형해석과 관련하여 여지도서에는 의령현의 배경이 되는 덕산(德山)이 황매산, 자굴산으로 부터 기가 이어져 읍의 진산을 이룬다고 하는 풍수적 용맥의 개념을 기술하고 있으며, 읍 전면에 있는 구룡산은 읍기의 안산이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 풍수적 의미의 지형해석을 함에 직접적인 기록으로 주목된다³⁴. 진산인 덕산의 경우,

30) 鵲山在郡南六里 俗傳郡地勢似飛鳳 鳳愛竹又鵲噪不飛去 故名曰竹防 竹防山距郡南九里在南川北川二水之口
 31) 嶠南誌,卷之二十一,鵲山在郡南六里自金剛山來俗傳郡勢以飛鳳愛竹又見鵲噪不去故名又有竹坊 竹坊山在郡南九里一名遊鳳山自八公山來爲南北川水口
 32) 竹坊山在郡南九里一名遊鳳山自八公山來爲南北川水口
 33) 宜春館客館仁祖庚午重建(中略)...樂豐軒東軒 如歸堂在客舍前 鄉射堂在東軒西 軍官廳在將官廳西 將官廳在東軒西 人使廳在東軒東南

의령현 지도(그림 11)에서는 봉덕산(鳳德山)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좌청룡 우백호의 기술은 없지만 의령현 지도를 통해 풍수적 지형해석의 일단을 살필 수 있으며, 우백호 자락에는 대밭을 심어 지형을 보완하고자 했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풍수사상이 당시의 통치적 측면에서 볼 때는 의령 현민들에게 의령현이 살기 좋고 안전한 그리고 복된 땅이라고 하는 기대의식을 가지게끔 하는 심리적 수단으로도 활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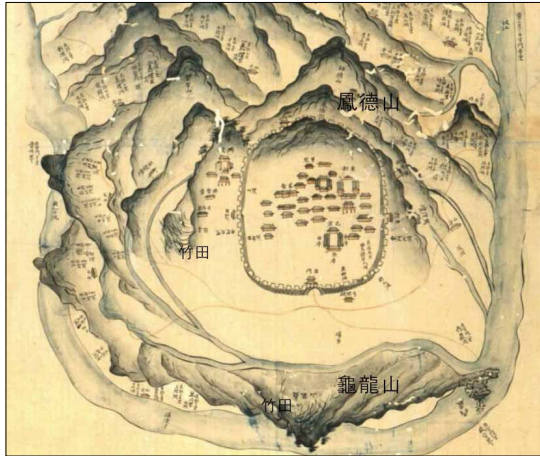


그림 11. 의령현지도(1872년 지방지도)

(3) 공간개조

의령현의 지형해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풍수적 위안과 함께 봉황의 개념은 읍치공간의 개조에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령군지의 기록에는 봉황사상과 관련하여 의령현감을 지낸 황덕유 현감(불현정, 1596-1659)³⁵과 관한 설화를 기술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략)...황덕유 현감은 성품이 온유하고 청렴한 목민관으로 훗날 그의 송덕비가 세워지기도 한 인물로서, 풍수지리에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황 현감은 부임이후 고을 주위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지형, 지세를 살피고 지맥과 지혈을 찾아내느라 매우 바빠다. 어느 날 현감이 동헌 뒷산인 봉덕산에 올라 내려다보니 봉황내의 지형으로 고을 읍지로는 아주 좋은 곳이었다. 그래서 산 이름을 봉무산으로 고쳐 부르게 하고 나무를 많이 심게 했다. 그런데 맞은 편 안산에 오동나무가 없어 봉황이 깃들 수 없고 왕대나무가 없으니 봉황의 먹을거리가 없다는 것을 황 현감은 알게 되었다...(중략)...그래서 황 현감은 두루 논의를 거쳐 안산에 대밭을 만들게 하고 산자락에 오동나무를 심도록 권장했다. (하략)

이상 황덕유 현감에 의해 해석되는 의령의 지형과 봉무

산(鳳舞山)을 비롯한 오동나무, 대숲의 조성 기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의령의 읍치경관은 지역민의 염원을 담고 봉황사상에 의거해 재구성되었음을 상정할 수 있다.

3.7 함안

(1) 역사적 경관

함안은 조선시대 함안군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지금의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면, 여항면, 군북면, 법수면, 대산면, 산인면, 마산시 진전면 북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이었다. 현재 함안군청은 가야읍에 위치하고 있으나 1954년 군청이 현 가야읍으로 옮겨지지 전까지는 옛 함안의 중심은 현 함안면 봉성리 일대이었다.

조선시대 함안의 대표적 경관으로는 함안군지도(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읍성³⁶을 중심으로, 객사, 아사, 태평루 등의 관아시설들이 묘사되어 있으며³⁷. 함안총채록에 의하면 관아시설이외에도 봉황사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경관요소로서 오동림과 죽림 등의 숲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공간의 대부분은 훼손되었으며, 현재는 읍성 성벽의 일부만이 잔존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불충분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2) 입지해석

함안의 입지해석과 관련하여 여지도서의 함안군, 산천조³⁸에는 군의 서남 15 리에 있는 여항산을 함안의 진산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주산의 존재는 1750년 초에 제작된 함안읍의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여항산에서 비롯된 산줄기가 읍지의 배경이 되는 비봉산을 이루고 이 비봉산(飛鳳山)을 배경으로 읍치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공간개조

전술한 바와 같이 함안은 주산인 비봉산과 연관된 경관요소들을 문헌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오동나무와 관련해서는 함안총채록(오형목, 1890년)에“

...(전략)그 아래는 푸른 절벽이었는데 큰 내가 남쪽으로부터 와서 교여 거울 같았다. (중략) 내 밖으로는 천 그루 정도의 벽오동이 있었다...(중략)...푸른 대 숲이 정자 뒤에 총총히 나 있으나 모두 옛날 모습은 없으니(후략)..."

이라는 주세봉이 쓴 기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며, 상계한 함안군 지도에서도 오계(梧溪), 즉 오동나무 계곡이라

34) 德山在縣北五里呂鎮山自三嘉黃梅山來一脈爲閭巒山一脈爲呂基主山(中略)...龜龍山在縣南二里自閭巒山來蜿蜒如龜龍之形爲呂基案山(下略)...

35) ‘갑황덕유선정비’가 정암교 입구에 있는 백야공원에 이전 보관되어 있다. 황덕유 현감의 의령현감을 지냈던 시기에 관한 구체적 기록은 없지만 선정비에 ‘庚寅正月’에 선정비를 세웠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황덕유 현감의 생몰 연대를 통해 볼 때 선정비는 1650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36) 읍성은 石築으로 둘레가 7,003척, 높이가 13척이다.

37) 함안총채록에 의하면, 공해시설로는 객사, 동헌, 향사당, 군관청, 장관청, 기고청, 인리청과 청범루, 태평루, 봉서루, 금학헌, 남덕헌, 동문루, 남문루, 북문루, 풍화루, 무진정, 양사재 등의 루정을 기록하고 있다.

38) 餘航山在郡西南十五里晉州頭流山來爲本郡鎮山



그림 12. 함안군지도(1872년 지방지도)

는 지명을 확인 할 수 있어 주세봉의 기문에 보이는 오동나무 숲의 위치와 1542년 무렵의 경관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봉서루(鳳棲樓)와 죽림(竹林) 등을 통해 봉황사상에 의해 재구성된 함안의 읍치경관을 상정해 볼 수 있다.

4. 비교검토

4.1 역사경관

6개 읍치의 역사적 경관에 관한 검토를 통해 이들 소도읍은 모두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성, 성황단, 사직단 등 역사적 가치를 가진 환경들의 대부분은 훼손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이들 소도읍에는 지역민과 지자체의 의지 여하에 따라 아직 재생 가능한 역사적 경관 또한 산재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순흥의 봉서루(鳳棲樓)와 선산의 낙남루(洛南樓)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4.2 지형해석,

조선시대 지방읍치는 풍수적 관념의 용맥사상(龍脈思想)에 의해 지형이 해석되었으며,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순흥, 예천, 선산, 영천, 의령, 함안은 태백산(太白山)을 조종산(祖宗山)으로 보는 용맥에 근거한 새로운 지형 해석관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여지도서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록에서는 읍치의 배경이 되는 현무에 해당하는 진산(鎭山)에 대한 기록 이외에 좌청룡 우백호에 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읍지도를 통해서 당시의 풍수적 지형관을 읽을 수 있다. 주작에 해당하는 안산(案山)의 경우, 의령에서는 덕산을 읍치의 주산, 즉 현무로 보고 이에 대응하는 구룡산을 읍치의 안산(案山)이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당시의 풍수적 지형관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풍수사상에 의해 도식화되는 도시경관을 역사적 경관으로 인식하고 보존, 재생 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4.3 공간개조

연구대상으로 삼은 6개 읍치는 모두 봉황사상에 의해 읍치공간이 재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오동나무, 대숲과 같은 공통적 경관요소와 함께 봉황의 의미를 담은 건축물과 지명, 봉란(鳳卵)과 같은 봉황과 관련 있는 경관요소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형되었음을 밝혔다.

특히 읍치의 공간개조에 봉황사상이 관여하게 되는 배경에는 어려운 상황이 극복되기를 바라는 지역민의 메시아적 염원이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 경상도 지역 6개 읍치(순흥, 예천, 선산, 영천, 의령, 함안)의 지형해석과 공간개조의 사례검토를 통해 봉황사상에 의해 구축된 읍치공간의 특징을 밝히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6개 읍치(소도읍)의 역사적 경관에 관한 검토를 통해 이들 소도읍의 구도심에는 재생 가능한 역사적 경관 요소가 산재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특히 풍수사상에 의해 도식화되는 산과 강에 내재되어 있는 도시의 역사성과 상징성에 관한 검토를 통해 산, 강, 숲과 같은 자연환경을 역사적 경관요소로 새롭게 인식하고 앞으로 어떻게 보존, 재생 할 것인가에 관해 제안하였다. 우리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적 경관을 발굴하고 재생하는 노력은 도시환경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도시경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기에 향후 지방 소도읍의 도시경관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한국학문헌연구소편, 여지도서(1760년 편찬), 한국지리총서, 아세아 출판사
2. 허신, 설문해자, 중국 후한
3. 조선총독부, 조선사찰사료, 1911
4. 이수관, 지봉유설(地峯類說), 1614
5. 오홍목, 함안총쇄록(咸安叢鎖錄), 1890
6. 이택식(수산), 의춘지(宜春誌), 1930
7. 정원호, 교남지(嶠南誌), 1937.
8. 김정호, 대동여지도, 1861
9.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 지승(地乘), 1766 이후
1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 해동지도, 1750년대 초
11. 경북향토사연구위원회, 경북마을지, 1990
12. 이행, 흥연필,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13. 최원석, 한국의 비보풍수, 민속원, 2004
14. 신상화, 풍수사상에 의한 진주의 지형해석과 공간개조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제5권제2호(통권 제8호), 2007.12.

(접수: 2009.07.10, 심사완료: 2009.08.05)